

인사말씀



추위에 옷깃을 여미며 발을 동동 구르던 얼어붙은 계절이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3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겨울 내 움츠렸던 잔디가 벌써 싹이 돋아나고, 등 뒤의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니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피어나는 봄을 맞이하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드레스덴 필하모니 & 성 십자가 합창단'의 공연으로 봄의 시작을 열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1870년 창단되어 깊은 역사와 명문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여 전 세계 관객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 프로테스탄트 교회 소속 소년 합창단으로 투박한 독일인의 음성을 무겁고, 힘이 있으면서도 아름답게 구사해 내어 들을수록 잔잔히 울려 퍼지는 순수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드레스덴 필하모니와 성 십자가 합창단이 만나 인류 예술의 걸작인 바흐의 '마태수난곡' 전곡을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무대에서 공연하게 되어 기쁘고 설렙니다.

종교음악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바흐의 마태수난곡은 성경에 기초한 교회음악으로 예수 수난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어느 시기부터는 교회뿐만이 아닌, 전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간주 되어 많은 관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장대한 연주를 통해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모쪼록 드레스덴 필하모니 & 성 십자가 합창단이 완벽히 재현하는 인류 예술의 걸작 '마태 수난곡'의 감동을 관객 여러분도 함께 나누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희망하며, 더욱 더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 조석준